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5월

발행일 : 2025년 4월 24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21
✓ <팀코리아협의회동정>중진공, 한·베 ICT대학교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협약	22
✓ <기업탐방> 씨메스	23
✓ <법률>베트남 노동법상 징계 절차 개관	전현우 변호사 26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4탄	엄진용 회계사 28
✓ <통관>보세창고 반입·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 및 통관절차 ..	이여람 관세사 30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광닌성>	32
✓ <이달의보고서> 2025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메뉴얼	41
2025년 7대 산업 및 지역별 KOTRA 지원사업	
✓ <이달의 전시회> Autotech & Accessories 2025	42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43
✓ 사업 및 공지사항	47





2025년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정보

- 베트남 라면 소비량 전 세계 4위
- 매출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에 초점 맞춰야

최근 기술동향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최근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요구 변화와 함께,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과 친환경 소재 개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 법제화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섬유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용이성을 갖춘 순환형 섬유제품 생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베트남 기업들로 하여금 친환경 전환과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① **무수 직물 염색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베트남은 이미 네덜란드의 DyeCoo사가 개발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 기술인 'CleanDye'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염색 공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8%까지 줄일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크게 낮추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특히 염색 공정이 의류 생산 전체 탄소 배출의 약 5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② **에코 패브릭을 생산하는 신기술:** 베트남 현지 기업들도 다양한 친환경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cofa Vietnam과 BaoLan Textile은 파인애플 잎에서 추출한 친환경 섬유 소재인 'Ananas'의 대규모 생산에 성공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대응 사례로 주목된다. 이 외에도 Thanh Cong Garment는 사탕수수과 옥수수를 활용한 내화성 섬유를 개발하고 있으며, May10은 커피, 박하 등 천연 소재의 의류 제품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이슈

① **현지화의 핵심인 관련산업 개발 부진:** 산업무역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섬유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약 70%는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지원하는 관련 산업 개발 사업도 제한적인 수요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치민시 섬유 및 자수협회 부회장 Pham Van Viet는 "수년간 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지원 제도가 시장 안정성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매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②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한편, 베트남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핵심 생산 기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미국 내 의류 시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인도 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저렴한 인건비와 빠른 친환경 전환을 앞세워 베트남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는 아

아 내 새로운 섬유 생산 거점으로 급부상 중이다.

③ 미국 상호관세 부과: 미국이 여전히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 무역 정책 변화는 베트남 수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디다스(Adidas)의 CEO 비욘 굴덴(Bjorn Gulden)은 미국의 잠재적 수입 관세가 비용 상승과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이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4.2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46%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계에 큰 도전으로 평가된다.

주요 트렌드

①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 기술 도입: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4.0 기술의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기업인 May10은 봉제 과정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라인의 균형 조정과 인력·장비 투입 결정이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 문서 및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전체 업무 흐름의 단순화와 처리 속도 향상을 달성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지 국회의원인 Thanh Duc Viet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섬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섬유 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국제 장학금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②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친환경 경영: 베트남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도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박장 의류 주식회사는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공장을 설립하고, 에너지 절감형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저탄소 생산환경을 구축했다. 쯡꾸이 섬유회사는 룡안 지역의 생산시설에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2700억 동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설비 투자는 베트남 섬유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시사점

첫째, 베트남은 숙련된 노동력과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9개의 FTA와 12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며, 미국·EU·일본 등 주요 시장과의 연결성이 높다. 이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OEM/ODM 생산기지 확보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이 전략적 후보지로 유효함을 시사한다. 둘째, 베트남 정부는 섬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현지화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여전히 원자재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물·염색 공정의 내재화 수준이 낮아 생산체계의 자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 기업의 진출 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또는 염색 등 전방산업에서의 협력 기회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베트남은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파인애플·사탕수수·굴 껍데기 등 천연 소재 활용, 무염색 기술 도입, 태양광 공장 등 ESG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글로벌 수출 조건에서 친환경 인증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도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ESG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경우, 현지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닷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쟁국의 부상은 베트남 섬유산업의 수출 동력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EU의 수요 감소, 재고 과잉,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방글라데시, 인도 등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가격 외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단순한 저비용 전략보다는 기술력, 납기 대응력, 친환경 설계 등 복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과 장학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디지털 공정관리 시스템, 스마트 생산 설비 등 한국의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 이전 및 공동 투자 방식은 장기적 파트너십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트럼프發 상호관세 부과로 베트남은 경쟁국 대비 고율의 관세에 노출됐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 4월 9일자로 베트남을 포함한 주요국 대부분에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나, 베트남이 향후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에 위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현 상황에서, 베트남-미국 간 무역 및 관세 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섬유 산업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위의 다방면의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K-뷰티의 진화, K-퍼퓸이 이끄는 베트남 향수 시장 트렌드

- 프리미엄·커스텀·친환경을 키워드로 꾸준히 성장하는 베트남 향수 시장
- 감성적인 마케팅, 유통 및 브랜드 이미지 관리 전략 필요

베트남 향수 소비 트렌드

1) 프리미엄 향수 선호 확대: 소득 수준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고급화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은 대중 브랜드보다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젊은층은 향수를 단순한 향기 제품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며 차별화된 향을 중시한다. 2023년 기준 프리미엄 브랜드의 판매액은 약 8670만 달러로, 대중 브랜드(2660만 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하며 시장 내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니치향수, 고급 향료, 감성적 브랜드 스토리를 강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2) 니치향수와 커스텀 향수 수요 확대: 향수를 '자기 자신을 위한 감각적 소비'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베트남에서도 니치향수와 커스텀 향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설립된 '모라(Morra)'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향수 실험실(Perfume Lab) 체인으로, 고객 참여형 향수 블렌딩 서비스와 맞춤형 라벨 제작등을 통해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모라는 매장 내에서 진행되는 향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수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병 라벨 인쇄, 개인 맞춤형 브랜드 네이밍, 감성을 담은 향수명 스토리화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경험은 향수를 정체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MZ세대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하며, 베트남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3) 친환경 및 천연 원료 기반 향수 확대: 소비자들은 향수의 성분과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미파마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의 약45%는 천연 및 친환경 향수에 대해 일반 제품보다 10~15%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디, 플로럴, 과일 계열 등 자연에서 유래한 향조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머스크향과 결합한 복합 향 등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Clean Reserve, Le Labo 등 천연 성분 기반의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여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전자상거래와 SNS 기반 시장 판매 확장: Shopee, TikTok Shop, Instagram 등 전자상거래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라, 베트남 향수 시장도 온라인 유통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 브랜드나 스타트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을 기획·생산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 개발부터 디자인, 브랜딩까지 브랜딩 론칭에 필요한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도 등장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틱톡(TikTok) 등 플랫폼에서는 '이미지별 향수 추천', '상황별 추천 향수' 또는 '언박싱 영상', '인생템 소개' 등의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매장 방문 없이도 브랜드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전통 오프라인 유통 방식과 차별화된 강점을 보인다.

한국 기업 진출 현황

지금까지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중심의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향수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들이 점차 시장 가능성을 탐색하며 움직임을 보이는 초기 단계에 있다. 드 메모리아(De Memoria), 어딕트(A'ddict), 힌스(HINCE), 꼬모엘라(COMOELLA) 등은 프리미엄 향료 사용, 무알코올 포뮬러, 감성 중심의 브랜딩 등 각기 다른 콘셉트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직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본격적인 성과를 논하기 어려우나, K-뷰티와 함께 형성된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향수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채널 활용과 감각적 마케팅을 통해 현지 밀착형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향수 유통 채널 동향

베트남 향수 시장의 유통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이 중심이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오프라인 유통 비중은 약 83.2%, 전자상거래 비중은 16.8%에 머물렀다. 이는 향수 제품의 특성상 시향 후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제품을 직접 경험한 후 자신의 이미지나 취향에 맞는 향을 고르려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글로벌 브랜드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 후 기대와 달라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많다"며, "특히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층은 대중적인 인기 향보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향을 중시하여 직접 향을 맡아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 채널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 11.6%였던 온라인 유통 비중은 2023년 16.8%로 상승했으며, Shopee, Lazada, TikTok Shop 등 주요 플랫폼의 성장, 모바일 결제의 확산, 브랜드 진입 장벽 완화 등이 온라인 유통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향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유통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시사점

베트남 향수 시장은 프리미엄화, 개인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체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니치향수와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K-뷰티의 감성적 브랜딩이 현지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점은 한국 향수 기업에 유리한 요소다. 따라서 차별화된 콘셉트와 감성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결합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위조 제품 유통, 복잡한 등록 절차 등 유통 환경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정품 인증 시스템 도입, 사전 규제 대응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 트렌드 파악과 유통 파트너 발굴을 위해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고, 베트남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향수 시장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면, '넥스트 K-뷰티'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 시장 동향

- 베트남 라면 소비량 전 세계 4위
- 매출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에 초점 맞춰야

경쟁동향

베트남에서는 자체 인스턴트 라면 브랜드들과 해외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현지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로는 Acecook Vietnam과 Masan Consumer가 있으며, 두 기업 모두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도 Uniben, Asia Foods 등 여러 제조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브랜드 별로는 Acecook Vietnam의 'HaoHao'가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일 회사의 'Vina Acecook'과 Masan Consumer의 'Omachi' 또한 주요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Masan의 'Kokomi', Uniben의 '3Mien' 등도 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라면 기업들은 현지 생산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라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팔도는 베트남 남부 떠이닌성 인근에 제2공장을 신설하며 현지 공급 능력과 물류 효율성을 강화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해외 매출 증가로 2024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3% 늘었고, 오뚜기는 2024년 1분기 베트남 매출이 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성장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1000만 달러 규모의 증자를 통해 현지 시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세계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81억 개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많다. 이는 베트남 내 라면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며, 다양한 현지 및 해외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라면을 단순한 식사 대체재가 아닌, 편리하면서도 개성이 있고, 고급화된 제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제품 차별화는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저나트륨, 저지방, 영양 강화형 제품과 프리미엄 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식감을 개선하는 등 기술 기반의 제품 차별화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유통과 마케팅 측면에서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동시에, 베트남 시장에 적합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베트남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경영이 중요하다. 친환경 포장재의 사용 확대, 건강을 고려한 제품 구성,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도입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7월부터 사회보험 의무가입 확대 등 사회보험법 개정 시행
-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 계획 및 인사·노무 전략 재정비 필요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제2조)

1) 계약 기간 기준 단순화: 2024년 개정된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2조는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의 적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의 유형과 기간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및 3개월 이상 계약자는 a항에, 1개월~3개월 단기 계약자는 별도로 b항에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이원적 구조는 현장에서 해석과 적용의 혼선을 야기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조문을 통합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무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자”는 모두 사회보험 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명칭을 달리한 계약을 통한 사회보험 회피를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계약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 제공이 이뤄지는 인력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신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추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아래와 같이 일부 직군이 새롭게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업 가구의 사업주
-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에 사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
- 무급 기업경영자, 회계감사자, 국가자본대표, 기업자본대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 사장, 이사, 감독위원회 구성원 또는 감사

3)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범위 확대: 그동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TT비자 소지자, 정부 규정에 따른 자본금 출자한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등)도 12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기업 내부 이전, 퇴직연령 도달, 국제조약·협약에 의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사회보장 확대: 다층적 사회보험 시스템 구축 (제21~23조)

1) 사회연금 수당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연금 수당은 만 75세 이상 베트남 국민 중 공적 연금이나 기타 월정 사회보험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된다. 지급 수준은 현재 월 50만 VND로 검토 중이다. 단, 빈곤층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2) 사회보험 기여금: 일시금 수령 또는 월별 수당 선택 가능

정년에 도달했으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1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직 사회연금 수당 수급연령

(75세)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 사회 보험 기여금을 일시금 대신 월별 수당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이때 지급되는 월 수당액은 사회연금 수당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보험료 체납·회피 제재 강화(제40조, 제41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험료 체납 및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해당 내용은 건강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산금 부과 외에도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1) 체납: <체납금 전액 + 가산금 납부> 및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체납의 경우, 체납금 전액과 함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가산금은 연체 일수*0.03%의 비율로 산정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직전 연도 평균 사회보험기금 투자이자율의 2배 수준'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2) 회피: <회피액 전액 + 가산금 납부> 및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형사책임

고의적인 보험료 회피에 대해서는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피액 전액 및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행정 제재 또는 형사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

퇴직연금 최소 납부연수 단축(제64조)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가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기존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의 직군 및 근무 조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도 차등 적용된다. 일반 근로자는 노동법상 정년 도달 시 수급 자격이 발생하며, 지하 탄광 근무자 및 위험·유해 직종 종사자는 최대 정년보다 10세 이른 나이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규정 보완(제70조)

개정 사회보험법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근무능력이 81% 이상 감소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 요건이 신설됐다.

1) 베트남인 근로자(제2조 제1항 해당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시금 사회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연금 수급 연령 도달했으나, 사회보험 최소가입 기간인 1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일시금 대신 매월 수당(사회연금 수준 이상) 수령도 선택 가능
- 해외 이주 후 정착한 경우
- 중증 질병(암, 마비, 비대상성 간경변, 중증 결핵, 에이즈 등)에 걸린 경우
- 근무능력 81% 이상 상실 또는 중증 장애인
- 기존 가입자(개정법 시행 이전 가입자) 중 실직 후 12개월이 경과했으며, 의무·임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 군 복무, 공안 등 특수직에서 해제된 자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2) 외국인 근로자(제2조 제2항 해당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 연금 수급 연령 도달했으나, 사회보험 최소가입 기간인 1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중증 질병 또는 근무능력 81% 이상 상실

연금 수급 요건 충족했으나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노동허가증·진료허가증 만료 등으로 더 이상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임의(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 출산급여 혜택 추가(제94조, 제95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라, 기존에는 출산급여 수급이 불가능했던 임의 사회보험 가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12개월 내 임의사회보험 가입 기간 또는 의무사회보험과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출산급여는 아이 1명당 200만 동(VND)이 지급되며, 이는 정상 분만 외에도 자궁 내 사망 또는 출산 중 사망한 22주 이상의 태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의무사회보험과 임의사회보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사회보험 기준만 적용되며, 부부 모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명만 수급 가능하다.

시사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은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적용 범위 강화, 출산급여 수급 요건 변화 등은 고용 계약 방식과 인력 운영 구조의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연금 수급 및 일시금 지급 요건 개정은 장기 근속자와 고령 근로자의 퇴직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기존 지침과 근로 계약 조건 등을 점검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정 법령의 적용은 실제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하기 전에 현지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의 변화는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2025년 베트남 자동차산업 정보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정부 정책과 내수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 전기차와 빈패스트의 성장으로 시장은 친환경·경제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

VinFast 중심의 브랜드 점유율 재편 흐름

2024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는 VinFast가 8만7000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17.6%로 처음 연간 판매 1위에 올랐다. 이는 외국 브랜드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 특히 전기차 제조사인 VinFast가 중심에 선 첫 사례이다. 정부의 친환경 차 정책과 및 전기차 보급 확대와 최소 약 1300만 원 대의 저렴한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13.6%)와 토요타(13.5%)가 근소한 차이로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Ford(8.5%)와 Mitsubishi(8.3%) 등은 픽업트럭과 MPV를 중심으로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KIA, Mazda, Honda 역시 각 5~7%대 점유율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브랜드 간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다. 이는 VinFast의 약진과 더불어 외국 브랜드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주요 인기 차종 동향

브랜드 점유율과 더불어, 개별 모델별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시장 수요가 특정 차종에 집중되기보다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nFast의 VF 시리즈는 32,000대가 판매되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브랜드 내 매출의 36.8%를 차지하는 핵심 차종으로 부상했다. 그 외에도 Mitsubishi Xpander(MPV), Ford Ranger(픽업트럭), Mazda CX-5(SUV)와 같이 다양한 차량 유형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 모델은 각 브랜드 매출의 40~47%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며, 베트남 시장의 실용성과 다목적 차량 수요가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한편, Toyota Vios, Hyundai Accent, Honda City와 같은 소형 세단도 경제성과 연비를 중시하는 소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선택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차종이 고르게 수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 내 자동차 시장의 특징이다.

교통부문 친환경 전환 정책 확대

베트남 교통부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30%, 오토바이의 22%를 전기 구동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9% 감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전기 자동차(EV) 도입 확대가 주요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한 국가 기술 표준 개정 작업도 현재 검토 중이다. 또한 교통부는 2030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총 623대 도입할 계획이며, 이 중 호치민시에 423대, 하노이에 200대를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차량에 바이오연료(E5)를 100% 적용하는 목표도 설정되었다. 이러한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현지 투자 및 합작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친환경 차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베트남 자동차산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p>① 빠른 경제 성장 및 중산층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확대로 개인차량 구매 수요 급증 -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22% 성장하는 등 시장잠재력 급성장 <p>② 정부의 적극적인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등록세 감면 등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p>③ 현지 기업의 빠른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기업들의 기술력 및 생산 역량 지속적 향상 -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 및 노하우 습득 <p>④ 다양한 자동차 시장 세그먼트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형 소형 세단부터, SUV, 전기차 등 폭넓은 시장 수요 	<p>① 높은 수입 의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분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 -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취약한 구조 <p>② 제한된 기술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R&D 투자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p>③ 교통 인프라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중심의 편중된 인프라 구축 -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미흡 <p>④ 높은 초기 투자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생산 설비에 대한 대규모 초기 투자 필요 - 글로벌 경쟁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 어려움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p>① 전기차 시장 성장 및 친환경 정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와 부합 <p>②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 투자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내 생산기지 확대 -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 및 이전 노하우 공유 <p>③ 아시안 지역 내 생산 허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IGA 협정을 통한 무관세 혜택 활용 가능 -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위치 <p>④ 디지털 기술 및 커넥티드 카 트렌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성장 잠재력 확대 - 젊은 소비자 층의 기술 수용성이 큼 	<p>① 배출가스 및 환경 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 관련 더 엄격해지는 국제 기준 - 친환경차 의무 도입 압박 심화 <p>②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무역 긴장 및 글로벌 경제 침체 위험 <p>③ 치열한 시장 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베트남 시장 진입 확대 <p>④ 원자재 및 부품 공급 리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및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 증가

시사점 및 전망

한국 기업은 EV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현지 합작투자, 조립생산 및 충전 인프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기업과 현지 브랜드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베트남의 소비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 현지화된 제품 기획, 가격 경쟁력 확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시장 안착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세제 인센티브 등 정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친환경 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 수요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QR결제에서 BNPL까지, 베트남 핀테크의 끝없는 진화

- 디지털 결제, 자산, 인수어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글로벌 투자 이어져
-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실한 이해 필요

베트남 핀테크 시장의 성장요인 및 트렌드

베트남의 핀테크 시장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요인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약 77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베트남의 중산층은 디지털 금융 솔루션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결제와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빠른 보급도 핀테크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통신 인프라 확충은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현재 베트남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를 넘어서고 있으며 전체 모바일 활용률은 총인구 대비 169.8%로 매우 높다. 이로써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타 국가 대비 저렴한 통신비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QR 코드가 현금 거래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상반기 QR 코드 결제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106.7% 증가했으며, 활용 분야도 편의점과 레스토랑을 넘어 전자 제품, 보석, 금융 투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핀테크 시장, 주요 플레이어는?

기업(서비스)명	개요
Mo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자 지갑이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 현재 약 3천만 명의 사용자 보유 ▪ 전체 전자지갑 시장에서 68% 점유율 차지
Inf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200만 명의 사용자 보유 ▪ 2018년 최초 설립 이후 유명 글로벌 투자펀드로부터 투자유치 성공 ▪ 드래곤캐피탈, ACB캐피탈, 미래에셋펀드운용 등 파트너사가 참여해 다양한 자산 유형에 투자 연계 지원
VNP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지원, QR 코드 결제 포함 여러 금융 거래 동시 처리 가능 ▪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자결제 업체 중 하나
Bizz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활동 간소화,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회계자동화 애플리케이션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및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청구서 결제, 영수증 스캔, 컴플라이언스 및 장부정리 처리 ▪ 그랩, GS25, 서클K, 티키 등 100여 개 주요 고객사와 4,000여 개 계약업체가 사용

기업(서비스)명	개요
Ti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 개설, 저축, 정기예금 등 금융연계 애플리케이션으로 비자 신용 카드 발급 및 BNPL(선구매 후지불) 옵션 제공 다양한 투자 및 보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제공
Finh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사용자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제공 현재 270만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 보유
Nano Tech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들이 근로 소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부이(Vui) 운영 고용주들에게 비용 효율적인 유연한 복지 플랫폼 제공, FPT 리테일, 센트럴 리테일 등이 주요 협력사임
Anf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쉽게 활용가능한 주식투자 플랫폼으로 이용자간 투자지식 공유 및 소통, 주식프로파일링, 위험평가 등 다양한 기능 제공 2021년 설립 이후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기록, 2022년 48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공,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 확대 추진

시사점 및 전망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련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덕분에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기회 속에서 베트남 내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관련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젊은 인구와 비교적 긍정적인 투자 환경 덕분에 시장 진출에 유리한 요소가 많다. 베트남 유망 IT기업 ST united사의 자문을 맡고 있는 Mr. Mukesh는 KOTRA 다낭 무역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핀테크 시장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는 외국 기업 및 관련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이지만 성공하려면 현지 시장환경과 정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므로 베트남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시장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핀테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및 법적 틀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22년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베트남 중앙은행을 관할 주체로 삼고 핀테크 시장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부처들이 신기술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근 디지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요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 핀테크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 진입 사업자와 차별화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지에는 다수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 자외선 차단제 시장동향

- 기능성 제품 중심으로 성장 중인 베트남 자외선차단제 시장
- 제품 인증 및 관세 혜택을 위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유통 채널 공략 필요

시장 동향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 자외선 차단제(Sun Protection) 매출규모는 2018년 2820만 달러에서 2024년 3924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7.9% 증가한 4236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 확대, 스킨케어로서 자외선 차단제의 일상화 등 소비자 행동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며,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5439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5.13%로 추산된다. 한편, 베트남 자외선차단제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이 여전히 수요를 주도하고 있으나, 일반 제품과의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프리미엄 제품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며 고급 제품에 대한 꾸준한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53.0%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51.9%로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 제품은 같은 기간 47.0%에서 48.1%로 소폭 상승하며 견조한 수요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두 제품군 간 점유율 격차가 5%p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중저가 일반 제품도 고기능성, 가격 경쟁력,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프리미엄 제품이 주로 백화점, 명품 전문점 등 고급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일반 제품은 슈퍼마켓, 소매점 등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통해 유통되며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는 두 제품군 모두 기능성 강화와 포지셔닝 다변화, 유통 채널 전략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 진출 동향

베트남 자외선차단제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프리미엄과 중상위 가격대 제품을 중심으로 점차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브랜드로는 이니스프리, 라운드랩, 비온드, 코스알엑스, CNP, 구달, 디어달리아 등이 있다. 이들 브랜드는 대부분 SPF 50+ 및 PA++++ 이상의 고차단력을 기본 사양으로 선보이며, 유기자차·무기자차·혼합자차 등 다양한 자외선 차단 기술을 반영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대는 40만 ~ 70만 동 수준으로, 현지 유통 중인 유럽·일본 프리미엄 브랜드와 유사한 중고가 제품군으로 포지셔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K-뷰티 브랜드들은 기능성·피부진정·톤업 등의 부가 효능을 강조한 제품을 앞세워, 고객 세분화 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스킨케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트렌드와도 맞물린다. 브랜드별로는 '차앤박(CNP)', '디어달리아' 등 더마·비컨셉트 브랜드의 진입도 확대되고 있으며, 뷰티 박스(Beauty Box) 등 뷰티 전문 유통 플랫폼 입점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 베트남, 미국산 제품 수입관세 인하 추진

베트남 재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 위해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 추진중이며 자동차는 최대 64% → 32%, 체리·사과 등 과일 및 아몬드·피스타치오 등 견과류는 5%로 인하 추진. 미국은 베트남 최대 수출 시장(30%)으로 미국 무역 적자는 약 1,040억 달러임. 베트남은 관세 정책 조정을 통해 수입 다변화 및 무역 균형 유도예정.

[Thien Phong 3.26]

▶ 베트남, 동남아 관광 성장률 1위 기록

2024년 베트남 방문 국제 관광객 수는 1,760만 명으로 싱가포르를 넘어 동남아 3위에 오름. 블룸버그 통신은 개방적 비자 정책, 직항 노선 확대, 고급 호텔 증가 등이 베트남 관광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함. 관광 회복률 부문에서 98%를 기록하며 태국(87.5%)과 싱가포르(86%)를 크게 앞지름. 또한 미술책 가이드 확장 및 고급 호텔 유치로 고급 여행객 유입 증가하였음.

[Vietnam.vn 3. 27]

▶ 베트남-브라질,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시장경제국 공식 인정

브라질 룰라 대통령,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천명함. 농업, 국방, 디지털 등 협력 확대 예상.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억 달러 목표로 MERCOSUR와의 FTA 협상 가속화 진행. 베트남,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검토 중임.

[VN Express 3. 28]

▶ 베트남, 1분기 GDP 성장률 7% 기록

2025년 GDP 성장률 6.5~7% 전망, 정부는 연 8% 이상 성장 목표를 제시함. 제도 개혁, 인프라 개발, 인적 자원 강화 등 3대 전략적 돌파구 추진하며 교통·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 및 신산업 육성에 집중함. 민간 부문 육성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함.

[The Investor Vafie Magazine 3. 30]

▶ 과일·채소 수출 감소, 중국향 수출 급감이 주요 원인

2025년 1분기 베트남의 과일·채소 수출은 11억 달러로 전망되며,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 예상. 수출 감소의 원인은 중국향 수출 부진으로, 1~2월 중국향 과일·채소 수출은 약 3억 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중국은 베트남 전체 과일·채소 수출의 44.5% 차지). 對중 수출 부진은 두리안 수출 급감에 기인, 2025년 1월 중국향 두리안 수출은 1,800만 달러에 그쳐 2024년 12월 대비 74.1%, 2024년 1월 대비 83.2% 감소

[Nhan Dan 3. 30]

▶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증...북부 지역 투자 유치 호조

박닌·하남·하이퐁은 친환경·첨단 기술 기업 유치 중임. 2025년 들어, 박닌성은 16.7억 달러의 FDI 유치로 연간 목표 조기 달성, 하남성은 5억 달러 유치, 하이퐁은 2개월 만에 2.78억 달러 유치하며 1천 개 넘는 FDI 프로젝트 유치 중임.

각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통해 투자 환경 지속 개선... 향후 FDI 확대 지속 전망

[Nhan Dan 3. 31]

▶ 베트남, 2025년 4월 경제 개혁 시행

농지 활용 상업용 주택 개발 시범 사업 도입 예정이며 지방의회 승인이 필수임. 2026~2030년 공공투자 자본 배분 기준 수립하고 긴급·국가사업 우선 지원 예정. 지속가능한 민간 기업 지원 자금 관리 지침 마련을 통해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영기업 임금·보수 규정 개편, 공정·투명한 보수 체계 도입

[Vietnam Net 4.1]

▶ 전략적 무역 통제 법령 초안 발표

2025년 4월 1일 베트남 전략적 무역 통제 초안이 공식 발표됨, 아태지역 중 선도적 행보로 이중용도 품목·첨단 기술 제품 관리 강화, 무역 투명성·신뢰 확보 목적임. 美 등 주요국과 협력 강화, 공급망 투명화 및 불법 이전 방지 방침 반영 되었으며, OECD 수준의 공개 협의 도입, 글로벌 규칙 제정 참여 의지 표명

[Vietnam Net 4.2]

▶ 美 관세 대응 위해 주요 수입품 관세 인하

2025년 3월 31일 베트남 정부는 美 관세 조치 대비해 수입품 관세 인하를 단행함. 자동차·에탄올·냉동 닭다리·견과류 등 세율 인하, 목재 및 가구 관세 0% 적용. 美 기업 투자 유치 및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 전문가들은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시장 다변화 필요 강조하며, 對美 협력 확대 방안 제안

[Vietnam Plus 4.2]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34.7% 증가

2025년 1분기 베트남 FDI는 약 109.8억 달러, 전년 대비 34.7% 증가함. 기존 프로젝트 증액(5.16억 달러) 및 지분 인수(14.9억 달러) 급증 했으며, 신규 투자 감소했으나 3월 들어 회복세, 프로젝트 수·금액 모두 증가함. 제조업(61.9%)·부동산(21.8%) 중심 투자로 싱가포르·한국이 주요 투자국임.

[Vietnam Plus 4.2]

▶ 아시아개발은행, 베트남 2025년 경제성장률 6.6% 전망

베트남 2024년 무역·수출 제조업 회복, FDI 증가로 7.1% 성장, 2025년도 6.6% 전망함.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성장 리스크 존재하며 정부, 제도 개혁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통해 대응 추진

[Vietnam Plus 4.9]

▶ 1분기 농림수산물 수출 13% ↑

베트남 1분기 무역흑자 44억 달러를 기록함. 2025년 1분기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5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함.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순으로 흑자 크고, 주요 수출품은 목재, 커피, 새우이며, 아시아가 최대 시

장(42%), 뒤이어 미주(22.5%), 유럽(16.6%) 순임.

[Vietnam News 4.10]

▶ 1분기 소매·서비스 매출 10% 가까이 증가

2025년 1분기 총소매 및 소비 서비스 매출은 약 6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9.9% 증가함. 설(Tết) 연휴 소비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됨. 여행·관광, 숙박·음식, 기타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여, 정부는 전 시장거래 활성화와 내수 진작 정책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임

[Vietnam News 4.10]

▶ 34개 성·시 통합 개편안 확정, 7월 시행 예정

행정개편에 따라 52개 성·시를 34개 광역단위(28개 성, 6개 중앙직할시)로 통합 예정임. 기존 11개 단위는 유지, 나머지 23개는 통합 후 새 명칭·도시 지정. 수도 하노이 외 호치민시, 다낭, 하이퐁 등도 통합 대상 포함되어 정치·행정 중심지로 재편 예정

[Vietnam Net 4.14]

▶ 한-베,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목표

한-베 양국은 제14차 산업·통상 공동위 개최를 통해 균형 있는 교역 확대 위해 협력 강화함. ‘코리아 플러스’ 등 실무그룹 운영 지속, 유통·물류·섬유 등 협력 확대 및 핵심광물·청정에너지·인력양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본격 추진 예정

[Bao Haiduong 4.15]

▶ 항공기 수입 승인 목록 확대

베트남은 항공사의 유연성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기종의 항공기 수입을 허용할 예정임.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 브라질 민간항공청,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TCCA), 러시아 연방항공운송청(Rosaviatsiya), 영국 민간항공국(UK CAA), 중국 민간항공청(CAAC), 베트남 건설부 중 한 곳에서 인증을 받은 항공기 기종은 베트남으로 수입 가능함.

[VN Express 4.16]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민 방문... 공동성명 및 45건 협력 문서 체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국민 방문(4.14.~4.15.)함. 양국 간 부처, 기관, 지방정부 등에서 총 45건의 협력 문서 체결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임. 철도협력위원회 신설을 포함해 AI, 반도체,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 확대 예정.

[Vietnam VN 4.16]

▶ 탄소시장 시범 운영에 전력·철강·시멘트 산업 포함

베트남 정부는 탄소시장 시범 운영에 전력, 철강, 시멘트 등 3대 산업 약 200개 기업 포함 계획임. 시범 운영은 2028년까지, 2029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 (환경보호법 제139조 및 시행령 06 기반) 임. 배출권 거래제(ETS) 도입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 생산 안정성 확보 목표

[VN Economy 4.17]

▶ 동나이성 FDI 자본 집행률 76.3%이상 기록

동나이성 산업단지에 총 1,520개 FDI 프로젝트, 등록자본 314.4억 달러 중 240억 달러 집행 (76.3%)됨. 한국, 대만, 일본 순으로 주요 투자국이며, 전자·섬유·기계·식품 등 다양한 분야 진출함. 생산제품은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수출.

[Vietnam VN 4.20]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Tram Wat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Quang Tri Investment, Trade and Tourism Promotion Agency (IPA) - Quang Tri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Trieu Phong Dist., Quang Tri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Calling for investment ■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roject is to build a clean water plant with a capacity of 150,000m3/day-night. This is a large-scale centralized clean water supply project, serving as a water source for the inter-regional water supply system (Hai Lang-Quang Tri Commune-Trieu Phong-Dong Ha City-Gio Linh-Vinh Linh). ➢ Tentative area: 90 ha ➢ The plant is included a clean water supply pipeline system pumping stations; water supply rehydration canal and a system of equipment and machinery for operation. Specific technical specification would be proposed by investors. ■ 세부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2026: investor selection, site clearance procedures ➢ 2026: deploy and complete the cluster of water plant, main pipes ➢ 2027: Complet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network

▶ 미국의 對中 상호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 ◇ 중국은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4.2)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4월 4일 총 6가지 조치 발표
- ◇ 동일 수준의 대미 상호관세(34%), 중희토류 7개 품목 수출통제, 일부 미국 기업 제재(Entity List, 중국으로 수출 금지 등), 의료 CT용 X선 튜브 반덤핑 조사 등 포함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USTR 연례보고서 발간
- ◇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제조업 약화, 경제적 불균형, 국가안보 문제 제기
- ◇ 통상정책 키워드 : ▲생산 경제 ▲미국 우선주의 ▲무역 협정 재검토 ▲대중 전략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 조치

- ◇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해 생산된 상품(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현지시간 2.10)
-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3.12부터 모든 파생상품에 25% 관세부과 공고(현지시간 3.11)
-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적용(현지시간 3.12)
-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주요국들은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관련 내용

- ◇ (대 중국 관세 인상) 4.10일부 125%로 인상
 - ☞ 트럼프 2기 정부 조치 관세 총 145% (2.4일부 10%+3.4일부 10%+125%)
- ◇ (그외 국가 대상 추가상호관세 90일 유예) 4.10일 0시~7.9일 0시
 - ☞ 4.5일부로 시행 중인 전세계 대부분 대상 10% 관세 유지 (한국 포함)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중진공, 한·베 ICT대학교와 베트남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부와 함께 10일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한-베 정보통신기술(ICT)대학교(VKU)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중기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체결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베트남 현지 우수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을 양성해 한국 스타트업과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 SW 실무역량 강화 교육 ▲ 한국 스타트업 취업 매칭 ▲ 멘토링, 세미나, 일자리 박람회 등 공동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지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 스타트업의 SW 개발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대학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해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 8일 베트남 호찌민기술대학교(HUTECH)와 현지 우수 SW 인력과 K-스타트업 간 채용 연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의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SW 인력을 발굴해 국내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로보틱스 선도기업 씨메스, 베트남 시장을 향한 도전과 비전

1. 씨메스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씨메스(CMES)는 AI와 3D 비전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비정형 공정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및 제조 산업의 지능형 로봇 자동화를 위한 AI 비전과 로봇 가이드언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정형 객체에 대한 인공지능 영상 인식과 정밀한 로봇의 가이드언스를 통한 AI 로보틱스 솔루션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팡과 올리브영을 비롯한 물류센터,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 공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국내외 인공지능 로보틱스 솔루션을 통한 자율제조 및 스마트 물류 시장과 미국, 베트남, 중국 등 해외법인 및 사무소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입지를 확장해 왔으며, 202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씨메스의 핵심 사업은 AI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으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비전 시스템

- 3D 비전 기반 로봇 가이드언스 기술
- 딥러닝을 활용한 물체 인식 및 품질 검사 솔루션
- 물류·제조 자동화를 위한 AI 기반 영상처리 기술

▪ 지능형 로봇 솔루션

- Inspection: 3D 비전을 활용한 고속 고정밀 품질 검사 및 불량 검출
- Active Robot Guidance: 비정형 물체 인식 및 정밀 로봇 경로 제어
- Piece Picking, Palletizing & Depalletizing: 물류센터 및 공장 내 상품 인식 및 이적재

2.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씨메스는 2023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씨메스가 베트남 시장에 주목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성장과 투자 환경: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베트남 내 한국의 프로젝트 수는 총 10,060개에 달하며, 누적 투자액만 874억 3천만 달러에 이르러 베트남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17.76%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2024년 양국 간 교역액은 870억 달러를 넘어서 전체 무역 규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에게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조업 및 물류 산업의 성장: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자리 잡은 베트남에서는 물류 및 제조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 고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씨메스는 AI와 비전을 활용한 선진화된 제조 및 물류 로봇 자동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및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AI 공정 혁신을 선구자로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 하노이 대표사무소 개소식에는 현지 IT, AI, 로봇틱스, 자동화 솔루션, 물류, 기계·전기·전자, 이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는 씨메스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씨메스는 베트남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3.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국내 물류 로봇 시장은 점차 성숙해지고 있지만, 베트남은 아직 초기 시장 단계에 있어 수요가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이 도전 과제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로 인해 로봇 도입의 투자 대비 효율성(ROI)이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사업 확장에 있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국가에서도 물류 자동화 및 자율제조를 위한 로봇 솔루션 시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 관계자들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장기적인 시장 성장 전망도 긍정적인 점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부품 조달과 동남아 제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베트남 시장 특성에 맞춘 경량화 된 로봇 솔루션 모델 개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 렌탈 및 구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물류 자동화의 장기적 효율성을 알리기 위한 현지 파트너십 및 교육 세미나를 확대하려고 있습니다.

4.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꼽아본다면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지화 전략 수립,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수반하는 법률 및 규제 준수는 물론입니다.

- 철저한 시장 조사 및 현지화 전략: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유치하는 시장입니다. 현지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현지 네트워크 구축: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 산업 협회, 대학/교육기관,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하노이 IT 지원센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트남 과학기술부, NSSC(National Startup Supporting Center), VAA(Vietnam Automation Association) 등 기관/협회와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Robot

- 및 자동화 기업, 현지 대학 및 교육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 씨메스는 GS리테일,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의 투자유치와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및 규제 준수: 베트남의 법률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지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지사 오픈닝>



<베트남 지사 쇼룸>



베트남 노동법상 징계 절차 개관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기업의 임직원이 회사 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가지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조치로 인해 차후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징계조치를 취하는 경우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징계조치는 (i)견책; (ii) 최대 6개월의 임금인상 연기; (iii)강등 및 (iv)해고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징계조치는 회사의 내규 및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가 가능하며, 법률은 어떤 행위가 어떤 징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부분은 회사내 취업규칙을 통해 징계 대상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회사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와 근로자 양 측에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법상 징계조치는 위 4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고 있고, 지각시 일정 금액의 벌금 등과 같이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하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은 위법한 징계조치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옛날 공산주의 양식을 참조한 자아비판 등의 징계조치가 회사 내 취업규칙에 포함된 경우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징계 조치는 회사의 단독 결정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징계위원회의 개최, 기록작성, 참석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근로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사측의 근거 제시, 근로자 대표자의 참석, 직원의 변호 및 변호사 선임권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위원회 및 징계조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신체, 존엄의 침해
- 징계조치 대신 벌금 또는 감봉
-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징계
- 한가지 행위에 대한 여러 징계 규정의 적용

또한 여러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장 중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최고 형태의 징계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징계조치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 질병, 요양,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수사) 중인 직원



-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중인 직원
-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케 하는 정실질환이나 다른 질병을 앓는 도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소결

회사의 정식 징계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관리자의 감정 및 기분에 따른,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징계조치는 유효한 징계조치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한 직원에 대한 지각벌금, 삼진아웃제 경고장 발부(징계위원회 미개최), 반성문 작성 등은 적절하지 아니한 징계행위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베트남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수립할 때에도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사전 통지, 근로자의 변호권 보장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른 공정한 징계 절차를 확립하고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4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치, 경제 등 여러 사정이 참 혼동스러운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미래예측이 더욱 힘들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전액 비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소득과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범위란?(계속)

지난호까지 2개월에 걸쳐서 과세대상소득으로서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제 수당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소득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서, 매 세무조사때마다 시골벽적인 한국내 개인소득의 베트남내 신고/납부에 관하여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의 성격으로서 비과세처리하는 항목들은 이전 호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항목들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15.4%



가 원천징수됨),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보상액, 사회보험법에 의거하여 수령한 퇴직연금, 친족간 발생한 상속/증여소득,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말 그대로 ‘비과세소득’으로 정의된 항목들이며, 많은 분들이 헛갈려하시는 항목들 가운데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를 잠시 설명드립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실제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정 요건 또는 조건을 갖춘 경우, 요건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가운데 세금부과대상에서 면해주겠다는 개념의 ‘비과세소득’과는 다른 정의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을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보는 시점이 1년에 한번 정도 도래를 하는데, 바로 이때가 연말정산하는 시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실 때 정확하게는 몰라도 인사/총무부에서 안내를 해주는 바에 따라 이런저런 증빙들을 모아서 제출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항목은 그 종류와 범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항목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본인과 부양가족에 관한 사항, 1년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내역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은행에 납부하셨던 대출차입금 이자액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목적하는 바와 그 성격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직접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라는 항목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보험료 납부한 금액, 의료비, 교육비, 정치자금기부금(이런 기부는 많이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등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해 나름 체계적이고 시대흐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우리 대부분이 몸을 의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법에 의해 강제가입해야하는 국가보험의 종업원 부담액, 그리고 본인 인적공제 월 11백만동 및 부양가족 월 4.4백만동이 전부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연금상품계약에 대해 불입하는 납입액 정도가 추가되기는 하나 한국인 주재원들 가운데 이런 연금상품에 가입한 분들은 아직 못 봤으니 큰 의미가 없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해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통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 부양가족과 베트남내에서 거주를 반드시 같이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으니, 베트남에 단신 부임을 한 분이라도 본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일한 급여소득에 대해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세금이 높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는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던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같이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번째 이유는 착시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세율적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첫번째 이유는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고, 두번째 경우는 오해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명목 세율'만 놓고 봤을 때에도 베트남의 최고 세율은 35%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45%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더 납부하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호에서는 전액 비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소득과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중 베트남내 비과세대상 개인소득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계속해서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창고 반입·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 및 통관 절차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보세창고는 수출입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있어 국가의 세관 감독 아래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보세창고 반입·반출 물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08/2015/ND-CP」 시행령 등을 기반으로 공문274/CHQ-GSQL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활동의 질서 있는 운영과 세수 확보,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문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세창고 물품의 반입·반출 요건 및 통관 절차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시행령 제08/2015/ND-CP 제85조 제2항에 따르면, 보세창고에 반입될 수 있는 외국 발송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기업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 소유자의 물품
- 베트남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국내시장 반입을 대기 중이거나 제3국 수출을 대기 중인 경우
-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된 물품으로, 제3국 수출을 대기 중인 경우

2. 반출 절차 관련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보세창고에서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 지역 또는 비과세 구역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물품의 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당 보세창고를 관할하는 세관에 반출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이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서의 반출이 해당 거래에 부합하는 수입유형(Import CD Type)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물품의 실제 수입 시점은 세관이 해당 물품의 보세창고 반출 사실을 확인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3. 세부 통관 절차

2015년 3월 25일 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38/2015/TT-BTC 제91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이를 보완한 2018년 4월 20일 자 시행규칙 제39/2018/TT-BTC에 따라:

-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물품
-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

이러한 물품들은 위 시행규칙에 명시된 통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입세 및 세금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4. 인증서 발급 절차보세창고 내 물품 사전 확인, 샘플링 및 관련 작업 규정

관세법 제18조 및 2015년 3월 25일 자 재무부 회람 제38/2015/TT-BTC 제17조(2018년 4월 20일 자 회람 제39/2018/TT-BTC에 의해 개정·보완됨)에 따르면, 세관 신고자는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사전 확인(pre-inspection)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물품 확인의 기회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21일 자 시행령 제08/2015/ND-CP 제8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소유자는 자신의 물품을 직접 보세창고로 반입하거나, 보세창고 운영자 또는 통관 대행인에게 위임하여 물품의 샘플 채취, 검사, 보강, 포장 분할, 재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정리, 등급 분류, 품질 확인, 기타 관리 업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물품 소유자 또는 보세창고 소유자는 해당 보세창고를 관할하는 세관 지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의 감독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결론

보세창고 내 물품 관리 및 관련 작업은 수출입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모든 반입·반출 및 부수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세관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감독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꽝닌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 6,208평방 킬로미터 인구 : 1,396,500명('24년 평균 인구) / 도시 거주 비율 : 69.5%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꽝닌성은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내륙 운송 및 물류 거점으로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북쪽은 중국 광시(Quang Tay)성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베트남과 중국 간 주요 교역 통로인 몽카이(Mong Cai) 국제 관문이 있어 양국 간 물류 및 상업 활동의 중심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하노이 및 하이퐁(Hai Phong)과 함께 꽝닌성은 '북부경제중심 개발 삼각축' 내 핵심 성장거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 간 연계 발전과 경제적 시너지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 105.5km, 하이퐁 - 하롱 고속도로 : 25km 반돈(Van Don)국제공항 및 하롱(Ha Long)국제크루즈항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GRDP 성장률 : 8.42% 1인당 GRDP : US 10,272달러/년 (2023년에 비해 7.7% 증가)
경제규모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 US 35억 달러/총 수입액 : US 39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6.05%), 서비스업(14.16%), 농림어업(0.08%)
경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건설업 : 60.74%, 서비스업 : 44.72%, 농림어업 : 4.53%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 가능 인구 : 692,400명 훈련 노동자 비율 : 87 % 자격증 소지 노동자 : 51 %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꽝닌성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3개 지역으로 나뉘져 있고, 가장 낮은 임금은 월 3,450,000동(약 US 133.3달러/월) 또는 시간당 16,600동(약 US 0.64달러/시간)이고, 최고는 월 4,960,000동(약 US 191.7달러/월) 또는 시간당 23,800동(약 US 0.92달러/시간)임. * 계약상 최저 임금에 관한 제 74/2024/ND-CP 의결서(2024년 7월 1일) 따름 * US 1달러 = 25,875 동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외국인투자 : 215개 프로젝트, 총 금액: US 165억 8천만 달러 한국 투자 : 15개 프로젝트, 총 금액: US 3억 821만 달러, 한국은 투자 20개국 중 자본 규모에서 10위, 프로젝트 수에서는 5위

투자환경



광닌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 광닌성은 총연장 176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전 지역을 관통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현대적이고 일관되게 구축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하노이-하롱 간 이동 시간은 약 1.5시간, 하롱-몽까이 간 이동 시간도 약 1.5시간으로 대폭 단축됨.
- ✓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축과 연계된 교통망은 도내 모든 지역은 물론, 주요 항만, 공항, 국제 관문과도 연결될 수 있는 현대적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철도)

- ✓ 광닌성은 총연장 176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전 지역을 관통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현대적이고 일관되게 구축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하노이-하롱 간 이동 시간은 약 1.5시간, 하롱-몽까이 간 이동 시간도 약 1.5시간으로 대폭 단축됨.
- ✓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축과 연계된 교통망은 도내 모든 지역은 물론, 주요 항만, 공항, 국제 관문과도 연결될 수 있는 현대적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항공)

- ✓ 광닌성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4E급 규모의 반돈(Van Don) 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25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이 공항은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반돈 국제공항은 국내 주요 공항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대표적 국제공항인 하노이 노이바이(Noi Bai) 공항 및 하이퐁 갓비(Cat Bi) 공항과의 연결성이 뛰어남.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국제공항과의 노선 확대를 통해 국제적 연결성도 지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반돈(Vân Đồn) 국제공항



혼가이(Hòn Gai) 국제 관광 크루즈 항구

(해운)

- ✓ 쩡닌성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6개 해운 구역과 4개의 국가 해운 항로를 보유하고 있음. 쩡닌성의 항만은 베트남 항만 시스템 계획에 따라 제1종 항만으로 분류되며, 총 14개의 부두가 베트남 항만 목록에 공식 등록되어 있음. 이들 항만 및 부두는 다양한 기능과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일부 화물항은 계획에 따라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으며, 최대 20만 톤 이상의 선박도 입항 가능함.
- ✓ 또한, 국제 규모의 관광을 위한 항만 및 부두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혼가이(Hon Gai) 국제 크루즈항은 최대 22.5만 GT급의 국제 크루즈선은 물론, 최대 6,5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 입항도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 항만 시스템은 경제구역, 산업단지와 가까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만과 연계된 물류 인프라 및 다양한 물류 서비스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투자자의 물류, 운송, 상품 교역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내륙수로)

- ✓ 쩡닌성은 총 37개의 노선으로 구성된 수송 밀도가 높은 광범위한 내륙수로망을 갖추고 있음. 또한, 159개의 내륙수로용 항만 및 부두가 조성되어 있어 우수한 인프라 연계성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경제중심지 및 산업 거점과 원활하게 연결됨. 이를 통해 수출입 화물 운송을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항만을 오가는 물류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관광

- ✓ 껑닌성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2024년에는 국내외 관광객 약 1,900만 명이 껑닌성을 방문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임.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 중 하나는 하롱베이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롱베이

➤ 천연자원

- ✓ 껑닌성은 약 36억 톤(전국 매장량의 43.8%)의 풍부한 석탄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하롱, 캄파(Cam Pha), 웅비-동찌에우(Uong Bi-Dong Trieu) 등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연간 3~4천만 톤의 석탄 채굴이 이뤄지고 있음.

경제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

➤ 산업단지 현황

- ✓ 껑닌성은 다양한 형태의 산업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의 산업단지가 설립되었고, 16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이와 함께 기존 및 계획 중인 36개의 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한 체계적인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 ✓ 껑닌성은 베트남 내에서 국경경제구역 3개소와 연안경제구역 2개소 등 가장 많은 수의 경제구역과 최대 면적(총 375,171ha)의 경제구역을 보유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적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지역임.
- ✓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 : 경제특구 내 신규 투자시:
 - ☞ 15년 동안 10%의 우대 세율 적용
 - ☞ 초기 4년간 세금 면제, 이후 9년 동안 세금 50% 감면

- ☞ 설비투자용 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 :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경제구역 내 기능지구의 기반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투자자의 경우, 「2024년 7월 30일자 시행령 제103/2024/Nb-CP」 제39조 제4항 g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토지임대료 면제 혜택이 제공됨
- ☞ 꽝옌(Quang Yen) 연안 경제구역 및 몽카이(Mong Cai) 국경경제구역('몽카이'시 관할 구역 내)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11년 면제
- ☞ 반돈(Van Don) 경제구역, 몽카이(Mong Cai) 국경경제구역(Hai Ha현 관할 구역 내), 박풍썸(Bac Phong Sinh) 국경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15년 면제
- ☞ 화잉모(Hoanh Mo)-동반(Dong Van) 국경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임대 기간 전체 면제
- ☞ 꽝닌성 정부의 지원 약속:
- ☞ 신속한 부지 정리 지원 및 조기 정리된 부지 인도:
- ☞ 맞춤형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 ☞ 전기, 수도, 교통 인프라 연결 지원: 사업 부지 경계까지 전기, 상수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연결 해주며, 생산 환경, 거주 여건, 보안 및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원활히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외국인투자 현황

- ✓ 외국인투자는 '24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165억 8천만 달러, 총 프로젝트: 215건

꽝닌성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액(\$)
BOT 몽즈엉(Mong Duong) 2 석탄 화력발전소	약 1,200MW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 및 이전	네덜란드	2,147,000,000
꽝닌 LNG 가스발전소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력 사업 및 역내 기타 수요처에 공급	일본	1,998,000,000
진코솔라 하이하이(Hai Ha) 베트남 태양광 셀 기술 복합단지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봉 제조 및 가공; 태양광 패널 제조, 가공 및 조립; 태양광 셀 제조 및 가공	홍콩	1,200,000,000
진코솔라(Jinko Solar) PV 베트남 태양광 셀 기술 프로젝트	태양광 패널 제조	홍콩	800,046,562
라이트온(Lite-on) 꽝닌 공장	전기 장비 제조 및 수리	대만	690,000,000
리미트리스 월드 베트남(Limitless World Vietnam) 도시개발 프로젝트	국제 기준(4~6성급)에 부합하는 종합 도시개발	UAE	550,000,000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액(\$)
텍스홍 하이하(Texhong Hai Ha) 산업 단지 내 섬유·의류 산업체인 건설 투자	원단/의류 제조 및 가공, 섬유 제품 도매, 방직·봉제 기계 및 부품 도매, 공장 및 창고 등 임대	홍콩	401,520,000
Jinko Solar Vietnam 실리콘 패널 기술 프로젝트(Jinko 2)	단결정실리콘 봉 및 웨이퍼 가공, 제조, 설치 및 판매	홍콩	365,629,003
탕롱(Thang Long) 시멘트 공장	탕롱(Thang Long) 시멘트 공장 건설	인도네시아	325,659,000
꽝닌성 꽝옌(Quang Yen)시 담냐막(Dam Nha Mac) 구역에 항구 및 산업 단지 개발 프로젝트	항만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홍콩	315,465,676

➤ 한국 투자 현황

✓ 한국 투자는 '24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US 3억 820만 달러, 총 프로젝트수: 15건

꽝빈성 한국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위치	투자액(\$)
LPG 저장소 (176,400m³규모)	LPG 저장소 건설, 냉각 LPG 구매 및 고압 LPG 판매	꽝옌(Quang Yen)	206,600,000
Bumjin Electronics Vina Co., Ltd	AV수신기 및 사운드바스피커 시스템 제조/조립/가공, 관련 부품 및 무선네트워크장비(AP라우터, 셋톱박스 등) 제조 및 조립	꽝옌(Quang Yen)	30,000,000
Tarpaulin 방수포, 플라스틱 제품, 건축 자재 생산 및 사업	Tarpaulin 방수포, 산업·생활용 플라스틱 제품, 건축 자재 생산 및 사업	하롱(Hà Long)	18,000,000
Jinsung Hitec Vina Co., Ltd	전자 플라스틱 부품 및 스피커 제조 가공	꽝옌(Quang Yen)	13,351,621
SAP Vina 안전벨트 제조	자동차 산업용 안전벨트 및 강철 버클 생산	꽝옌(Quang Yen)	13,000,000
Lotteria 패스트푸드 매장	패스트푸드 조리 및 제공	하롱(Hà Long)	12,000,000
롯데마트 하롱(Lotte Mart Hà Long) 쇼핑몰 개발(H5-1부지)	4층 + 지붕 구조의 상업 건물	하롱(Hà Long)	10,351,409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액(\$)
식품 가공 및 보관 공장 (구 명칭: 농산물 가공 및 보관 공장)	국내외 시장 판매 및 수출용 식품 가공 및 보관 공장	동찌에우 (Dong Trieu)	7,797,760
CJ CGV 베트남 하롱	하롱 빈컴센터 4층에 영화관 설비 투자 및 운영 / 영화 광고 활동 포함	하롱 (Hà Long)	2,850,000
Lotte Cinema 하롱	국제 기준 영화관 운영	하롱 (Hà Long)	1,950,000
Samkang Vina 세탁기·청소기 부품 공장	산업용 세탁기/청소기용 플라스틱·고무 부품 생산, 조립, 가공. 수출입 및 국내 도매	우옹비 (Uong Bi)	1,300,000
CJ CGV 베트남 캄파(Cam Pha)	영화 상영	캄파 (Cam Pha)	800,000
CJ CGV 베트남 몽카이(Mong Cai)	영화 상영	몽카이 (Mong Cai)	798,724
Arirang Vina	건강식품(노니, 침향 오일 등) 및 수공예 선물(대나무·라탄 제품 등) 유통	하롱 (Hà Long)	211,973

➤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의 현황

✓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유치 업종	토지 임대료 m ²	인프라 사용료 m ²
I	일반 산업단지				
송카이(Song Khai) 산업단지	2020	100ha	2014년 총리 결정 제66/2014/QĐ-TTg 및 2017년 제13/2017/QĐ-TTg에 따른 첨단기술 업종, 첨단기술 및 일반 가공·제조 산업의 보조 산업	\$110	\$1.02
박띠엔퐁(Bac Tien Phong) 산업단지	2016	산업용지 15ha, 석유화학용지 30~40ha	경공업, 항만 관련 산업: 하역, 물류, 창고, 항만 서비스, 물류 서비스	\$115 ~175	\$1.07
남띠엔퐁(Nam Tien Phong) 산업단지	2014	산업용지 20-30ha (항만 부지 포함)	경공업, 중공업, 화학, 식품산업, 항만 산업 관련 업종	\$105 ~175	\$1.07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유치 업종	토지 임대료 m ²	인프라 사용료 m ²
Texhong-Hai Ha 산업단지	2014	228.4ha	섬유, 원사, 섬유 보조 산업; 기계, 정비, 자동차 부품(단, 물 사용량이 많은 산업은 제한됨. 적절한 대책이 입증될 경우 예외 적용)	\$13	\$70
II	소규모 산업단지			토지임대료	
푸엡남 소규모 산업단지	2021	20ha 이상	다양한 업종(환경에 해로운 업종 및 법률상 금지 업종 제외)	2,650,000 VND/m ² (약 102.4 USD/m ²)	
껀틴(Cam Thinh) 소규모 산업단지	2018	9,1ha	농림수산물 가공 기계 제작 및 수리, 금속 가공 석탄 산업 관련 기계 제작 건축 자재, 목재 가공 등	2,500,000 VND/m ² (약 96.6 USD/m ²)	
남선 소규모 산업단지	2015	3-20ha	건축 자재 생산, 농림수산물 가공, 기계 수리 등	1,054,000 VND/m ² (약 40.7 USD/m ²)	

투자 유망분야

➤ 업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제조업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 친환경 산업, 청정 산업, 재생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 향만 및 물류 ✓ 문화 산업 (지역 음식 개발, 공연 등) ✓ 패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종합 관광 및 서비스 ✓ 생태 농업, 첨단 해양양식, 농·임·수산물 가공 ✓ 과학기술, 혁신, 연구개발 프로젝트 ✓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 ✓ 금융 중심지 개발
---	---

➤ 입지

- ✓ 주요 산업단지 (Song Khoai 산업단지, Bac Tien Phong 산업단지, Nam Tien Phong 산업단지 등)
- ✓ 꽝옌(Quang Yen) 연안 경제구역, 반돈(Van Don) 경제구역, 몽까이(Mong Cai) 국경경제구역
- ✓ 하롱(Ha Long), 우옹비(Uong Bi), 캄파(Cam Pha), 동찌에우(Dong Trieu) 등 현대적인 도시

➤ 유치 대상 투자자

- ✓ 투자 유치 우선 대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에 속한 대기업 및 그룹
- ✓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는 위성 기업을 동반 유치 가능한 투자자
- ✓ 신뢰성과 브랜드를 갖춘 투자자
- ✓ 자금력, 관리 역량, 경험이 풍부하며
- ✓ 특히 보조산업 분야에서 지역 기업과 협력 및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자
- ✓ 4. 우선 유치 대상 프로젝트
- ✓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 투자 자본 효율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젝트
- ✓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
- ✓ 노동력, 에너지, 물, 자원, 토지의 사용이 적은 프로젝트

투자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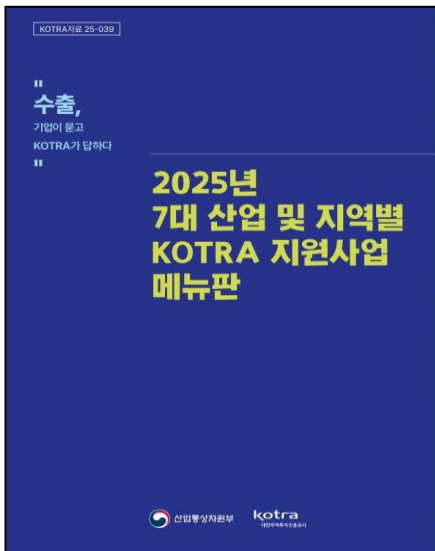
기관명	담당	연락처
꽝닌성 투자촉진지원위원회	Mr. Nguyen Doan Dinh Cuong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91-799-8001 ▪ Email: ipaquangninh@gmail.com
꽝닌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Pham Xuan Dai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90-406-3268 ▪ Email: phamxuandai@quangninh.gov.vn ▪ Website: https://qeza.gov.vn/



2025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들어가며
2. 무역사기 이해하기
3. 무역사기 예방전략
4. 지역별 무역사기 수법 및 대응 팁
5. 무역사기 발생 시 핵심 행동동령



2025년 7대 산업 및 지역별 KOTRA 지원사업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KOTRA 업종별 지원 메뉴판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KOTRA 지역별 지원 메뉴판

Autotech & Accessories 2025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호치민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 및 지원 산업 국제 전시회 [Autotech & Accessories]
개요	본 전시회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 및 지원 산업 분야에서 베트남과 국제 기업 간의 무역 및 투자 진흥 활동을 촉진 전시회임. 비즈니스 매칭, 컨퍼런스,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됨.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명으로, 등록된 오토바이 및 소형차가 약 5,000만 대에 달하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소형 이동수단 시장임. 베트남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한국 e-모빌리티 기업의 친환경 저연비·고효율의 이동수단을 수출하고, 현지 생산 유통 등 베트남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마켓임.
개최기간	2025.05.22 - 2025.05.25
개최장소	SECC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10,000sqm(m2)
웹사이트	atfaexpo.vn
산업분야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
전시품목	소.중.대형차,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등) 완성차, 소재, 부품, 주변기기 등
주최자	ASIA TRADE FAIR AND BUSINESS PROMOTION JSC (ATFA) +84-91-353-9198 / info@atfaexpo.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5. 3.31 기준 누계		2025. 1. 1 ~ 3.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152	92,463.14	77	105.14	2,036.10
싱가포르	4,028	85,367.14	121	1,320.98	3,034.92
일 본	5,557	78,644.70	77	341.75	1,127.22
대 만	3,301	41,432.64	44	368.12	678.87
홍 콩	2,898	39,280.60	95	310.21	499.29
중 국	5,351	32,168.98	251	1,233.57	1,472.13
버진아일랜드(영)	935	24,094.53	9	190.72	431.07
네덜란드	460	15,010.04	5	51.5	89.06
태국	763	14,758.67	10	36.53	436
말레이시아	769	12,974.51	11	3.55	69.75
미국	1,445	11,930.14	29	119.42	148.05
기 타	7,101	62,353.92	121	251.77	956.15
전체 합계	42,760	510,479.01	850	4,333.25	10,978.6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5. 3. 31 기준 누계		2025. 1. 1 ~ 3.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138	313,608.16	318	2,621.49	6,792.12
2	부동산 경영	1,245	75,211.29	30	1,130.31	2,394.48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9	42,072.30	1	116.2	130.16
4	호텔, 외식서비스	1,017	13,881.58	17	46.96	57.6
5	건설	8,333	12,146.95	269	102.22	272.45
6	도소매, 유지보수	1,854	11,003.28	15	5.22	27.99
7	물류운수	1,217	6,660.39	20	52.86	197.42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895	6,143.60	103	163.13	590.57
9	정보통신	3,153	5,155.02	46	3.95	70.32
10	채광	107	4,870.39	-	-	0.61
11	교육, 양성	707	4,634.99	5	0.6	43.95
12	농,임,수산	538	3,861.18	2	10.5	5.1
13	예술 오락	151	3,169.30	1	0.16	0.27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8	3,205.31	3	70.58	74.5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8	1,844.37	-	-	161.12
16	행정, 지원 서비스	690	1,126.95	15	3.4	8.71
17	금융, 은행, 보험	103	935.14	2	2.6	148.07
18	기타 서비스	161	938.17	3	3.1	3.1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 계	42,760	510,479.01	850	4,333.25	10,978.6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3
수 출	3,713	3,546	4,055	1,028
수 입	3,589	3,263	3,807	996
무역수지	124	280	247	31.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14,038(-0.9)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21,117(+29.2)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12,369(+13.6)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8,694(+11.1)
신발류	23,895	20,237	22,871	5,373(+12.1)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3,934(+11.1)
철강제품	7,993	3,973	4,594	1,371(+30.2)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3,923(+7.0)
수산물	10,923	8,971	10,040	2,311(+19.2)
원사(Yarn)	4,713	4,355	4,407	1,033(-2.0)
기 타	98,934	103,339	116,569	28,672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102,83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3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31,637(+31.5)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12,635(+22.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2,550(+12.0)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3,453(+9.7)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3,024(+20.8)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2,645(-9.6)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919(+35.7)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2,223(+16.4)
화학제품	9,144	7,605	7,735	1,806(+2.0)
화학물질	8,747	7,726	8,286	1,869(-3.4)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36,921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99,68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3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31,395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13,172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6,761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6,399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3,333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3,071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2,445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2,375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2,063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1,928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29,893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102,83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3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38,076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13,905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6,826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5,792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4,096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3,102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1,751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2,242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2,818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1,408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19,666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99,68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3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14,124(+6.8)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7,430(+4.7)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6,694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3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5,441(+37.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2,133(-4.2)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503(-35.5)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594(-6.8)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536(-3.6)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422(-0.8)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246(-0.1)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244(+25.3)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129(-28.7)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122(-7.6)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3,754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14,124(+6.8)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3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1,016(-18.8)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958(+2.5)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768(-6.3)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1,018(+45.9)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434(+15.1)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335(+11.0)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163(+1.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143(+43.3)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167(+27.8)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91(-3.6)
기타	8,161	9,103	8,718	9,543	2,337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7,430(+4.7)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행사개요

안녕하십니까? KOTRA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코참,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진출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MEET KOREA 2025를 5월 14일(수) 흥옌성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북부 핵심 경제지역인 흥옌성을 포함한 25개성·시의 고위급(당서기 혹은 성장급 등)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지방성·시와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본 행사에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 14:05~18:30
장소	Vietcombank Training Center, Ecopark Hung Yen
참가규모	한국 기관 및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베트남 25개 성·시 고위급 인사 약 300명 > 참여지방성(잠정): 흥옌, 하노이, 하남, 하이퐁, 박닌, 하이즈엉, 꽝닌, 난빈, 남딘, 빈푹, 타이빈, 라오까이, 라이치우, 까오방, 박깐, 호아빈, 옌바이, 타이응우옌, 디엔비엔, 랑손, 선라, 박장, 뚜옌꽝, 하장, 푸토

프로그램(안) (세부내용 및 연사 변동가능)

14:05~14:35	개회사/환영사 (베) Bui Thanh Son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흥옌성 지도부 (한) 최영삼 대사
14:35~14:55	장학금 수여식, MOU 체결식
14:55~17:00	Session 1. 새로운 시대의 베트남-한국 무역 및 투자 촉진 (진행: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 Nguyen Hoa Cuong 부소장) - (베) 흥옌성, Kinh Bac City Development Holdings - (한) 코참, KOTRA, VTK 한종덕 법인장 Session 2. 하이테크산업 협력 강화 (진행: 장호승 총영사) - (베) 랑손성, 타이응우옌성, Xuan Cau Holdings To Dung 회장 - (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잠정), AI Corporation(잠정)
17:00~17:15	폐회사 - (베) 외교부 지도부 - (한) 주베트남 한국대사
17:15~18:30	G2GB 네트워킹 간담회



G2B 네트워킹 간담회

참가기업의 성·시별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지방성에 사전 전달하고, 행사 당일 해당기업과 성·시별 책임자가 면담하여 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성·시별 투자 유치 희망 분야를 취합하여 업데이트 예정 [\(바로가기\)](#)

셔틀버스

- 출발/도착장소: 베트남 외교부 청사(2 Le Quang Dao, Me Tri, Nam Tu Liem)
- 운영시간: 추후 공지

신청접수

[여기](#)(링크 포함)를 누르시면 신청 링크로 자동 연결됩니다.

○ 문의처

- KOTRA (Tel) +84-24-3946-0511(531), (E-mail) soorin@kotra.or.kr

2025 한-베 E-모빌리티 공급망 협력 세미나·상담회

+ 세미나

- 일 시 2025년 5월 22일(목) 09:30~12:00
- 장 소 JW 메리어트 하노이, To Hay3
- 주 최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대 상 E-모빌리티 산업 및 연관 산업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E-모빌리티 산업 관련 베트남 정부/공공기관, 베트남/외국투자진출 기업 관계자
- 언 어 한-베 동시통역
-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연사는 추후 확정/안내)

시간	프로그램	연사
09:00~09:30(30)	등록	
09:30~09:45(15)	베트남 E-모빌리티 산업 현황 (베트남 정부 정책, 발전방향)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 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09:45~10:10(25)	베트남 E-모빌리티 산업 발전 전망 및 기회	Ernst&Young Vietnam
10:10~10:35(25)	베트남 기업의 베트남 E-모빌리티 산업 진출 현황 및 현지 파트너 발굴전략	베트남 기업
10:35~10:50(15)	커피 브레이크	
10:50~11:15(25)	베트남 기업의 베트남 E-모빌리티 산업 진출 현황 및 현지 파트너 발굴전략	현대캐피코 베트남법인
11:15~11:40(25)	외국 투자진출기업의 베트남 E-모빌리티 산업 진출 현황 및 현지 파트너 발굴전략	외국 진출기업
11:40~11:55(15)	Q&A	

※ 문의: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soorin@kotra.or.kr / 84 24 3946 0511(EXT.531)

+ 현지 글로벌 및 유망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 일 시 2025년 5월 22일(목) 13:30~16:30
- 장 소 JW 메리어트 하노이, To Hay3
- 주 최 KOTRA 하노이무역관 *협업: 국내외 전기자동차 관련 협회 및 베트남 공업국 등
- 대 상 글로벌, 현지 유망기업 15개사 (기업 정보는 추후 제공)
진출기업 및 국내 수출희망기업 40개사 등
- 분 야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충전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E모빌리티 분야
 - 전기자동차: Vinfast, Toyota, Thaco, MG, Kim long Motor 등
 - 전기이륜차: Yadea, Pega Lt, Detec, Honda, Selex Motor 등
 - 충전인프라: V-Green, PV Power, EverEv 등
-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B2B 상담회 신청기업 조사양식 작성 후 담당자 제출(4월 15일 접수마감)
 - 상담회 신청양식 다운로드: <https://shorturl.at/3YCRl>
 - 담당자: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팀장 (kimkdon@kotra.or.kr)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저작권자©KOTRA >